

# 어느 조용한 일요일 활동지

## 감정과 관점의 다양함을 간결하고 위트 있게 보여주는 그림책

화창하고 평화로운 일요일, 분홍색 페인트 통이 지붕에서 떨어지며 일어나는 한바탕 소동을 통해 그와 관련된 여러 인물들이 느끼는 관점의 다양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붕에 올려놓은 페인트 통이 바닥으로 쏟아지면서 일어나는 사건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끝나면, 등장인물 각각의 이야기들이 다시 시작되는 반전의 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각자의 시각에서 풀어내는 이야기들은 어떤 일이든 관점에 따라 모두 다르게 여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웃음과 함께 전달합니다.



2017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작



어느 조용한 일요일 / 이선미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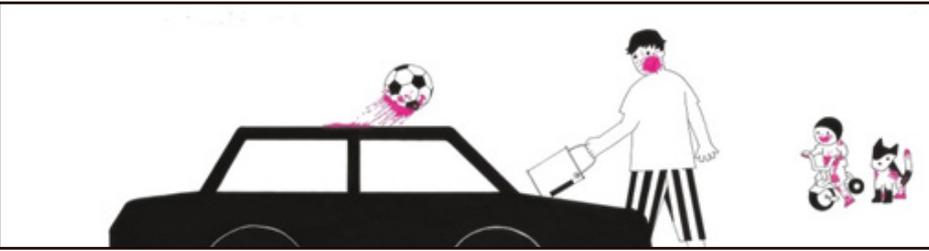
"북트레일러로 그림책을 살짝 엿보아요"

# 1. 다른 사람 마음 보고, 내 마음 찾아 이야기를 나눠요

● 똑같은 장면에 등장인물 네 사람의 대사가 한꺼번에 놓여 있습니다.  
내 마음과 가장 비슷하게 표현한 사람의 말에 체크 표시를 해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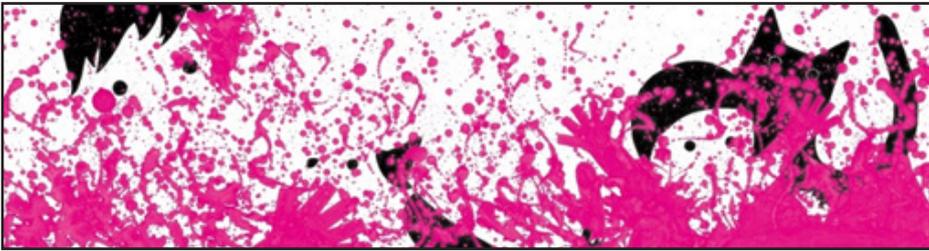
- 쇼팽, 너한테 축구공 차줄게.
- 잔잔한 음악을 듣고 있었어.
- 우리 집 지붕이 너무 멋져서 다 따라 할지도 몰라.
- 일내겠네, 일내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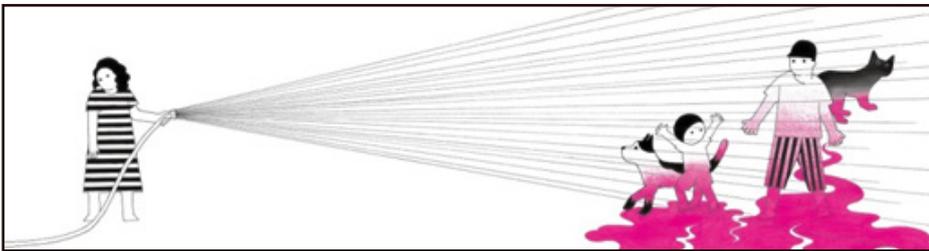
- 바람처럼 쌩쌩 자전거를 타야지.
- 밝은 햇살이 다 사라졌네요.
- 아뽀싸!
- 폼.



- 미끄럼 승!
- 시원한 바람도 다 사라졌어요.
- 그러면 안 돼!
- 지붕을 칠하는 건지 마당을 칠하는 건지, 하하하.



- 철퍽 철퍽 철퍼덕 철퍽
- 푸른 하늘도 모두 다 사라졌어요.
- 그만!
- 아이구 신났네, 신났어!



- 엄마, 더 세게 뿌려주세요.
- …….
- 지붕 칠하기에 딱 좋은 날씨였는데…….
- 저럴 때가 좋았지.

● 내 마음을 찾아보고 이야기를 나눠요.

나와 생각이 가장 비슷한 사람은 \_\_\_\_\_ 입니다.

\_\_\_\_\_ 는 \_\_\_\_\_ 점에서 나와 참 비슷한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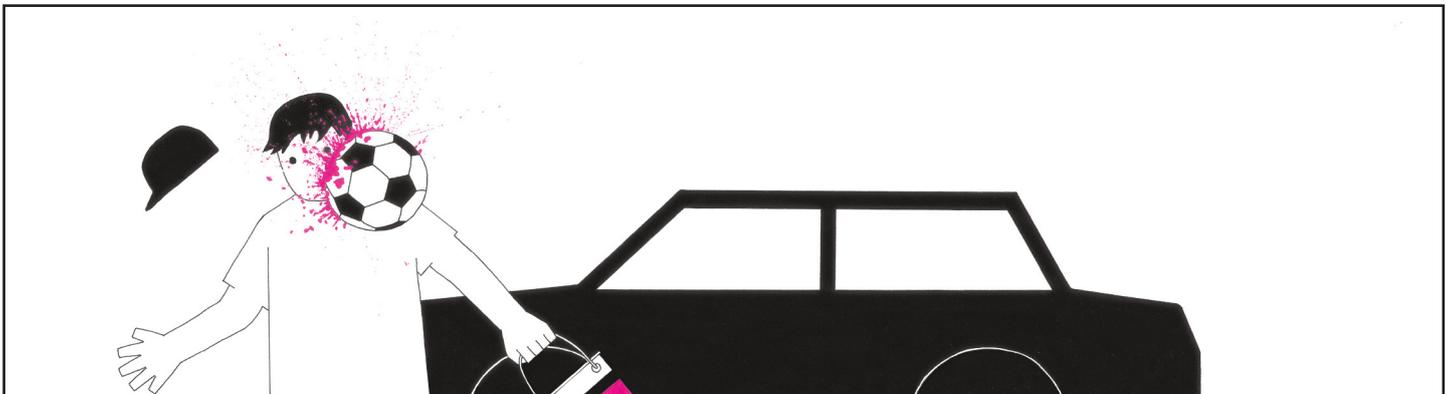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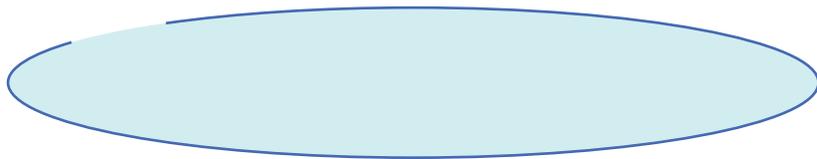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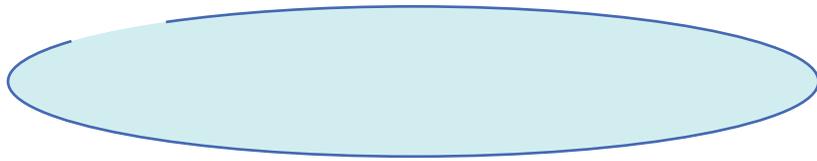
나와 생각이 가장 다른 사람은 \_\_\_\_\_ 입니다.

\_\_\_\_\_ 이(가) \_\_\_\_\_ 장면에서 \_\_\_\_\_ 한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웠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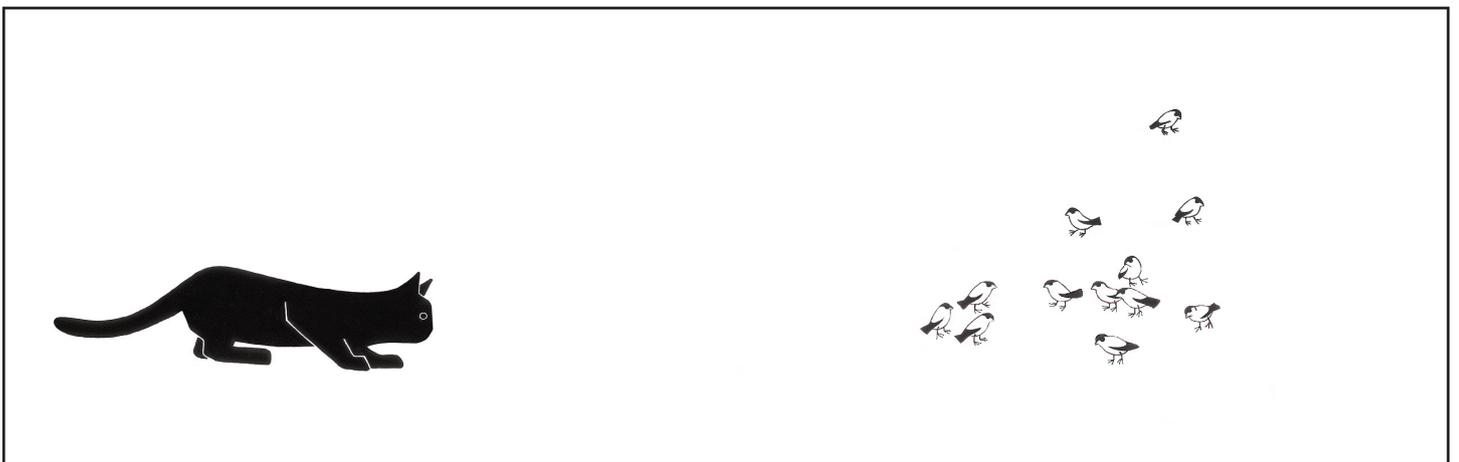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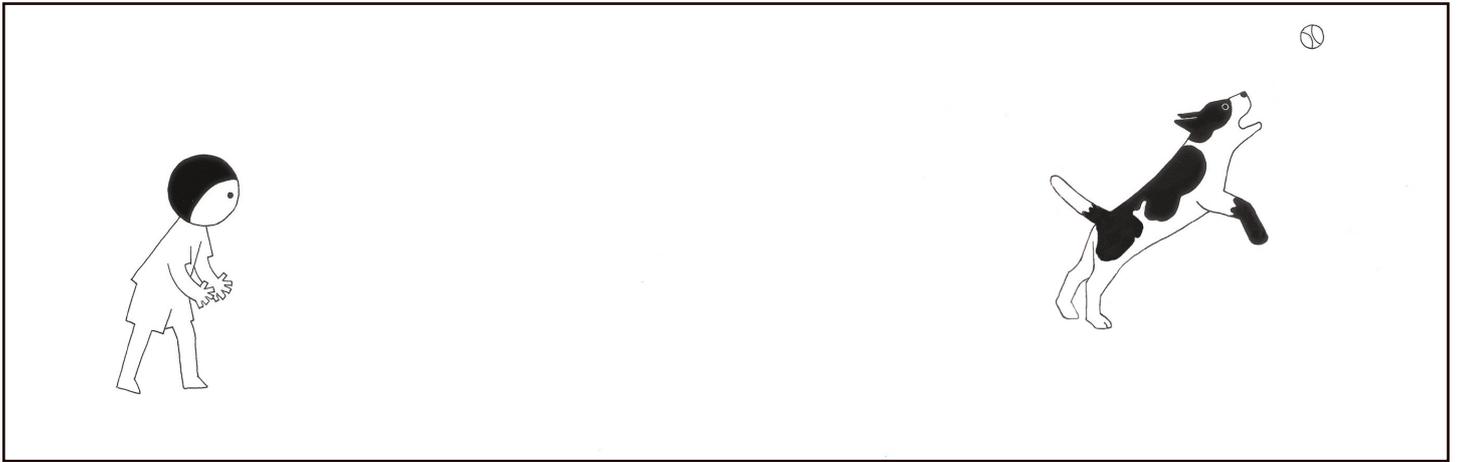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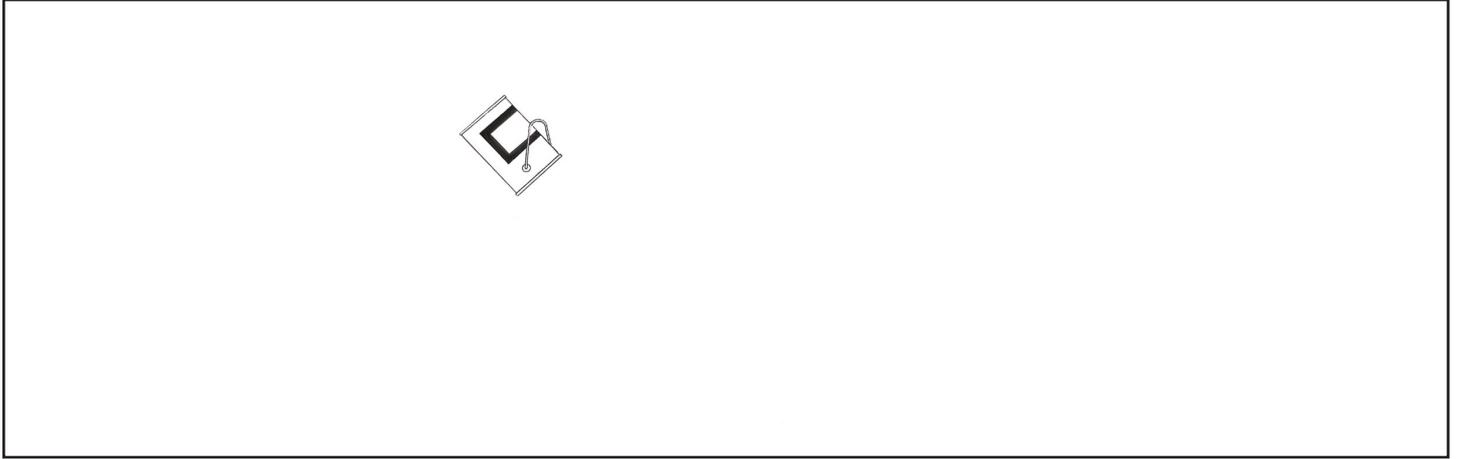
## 2. 나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아래의 장면에서 어떻게 말할까요?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을 재미있게 써 보세요.



### 3. 내가 만드는 일요일 이야기

지붕에 칠하고 싶은 색을 고르고 그 페인트가 떨어진 모양과 이리저리 튀고 번지는 모습을 주어진 그림 위에 그려 '나만의 일요일 이야기'를 완성해 보아요.



## 4. 그림을 이어 그려요

신나게 물감놀이를 하던 책 속 주인공이 자신의 손바닥을 째~ 찍어 주었네요.  
이 손바닥을 원하는 색깔로 칠한 다음, 상상을 더해 그림을 이어서 그려 보아요.

